



# NEW SPIRIT

*I will give you a new heart and put a new spirit in you; I will remove from you your heart of stone and give you a heart of flesh (Ezekiel 36:26)*

Inho & Yeonji Park  
Faith Academy Mindanao  
PO Box 81305  
8000 Davao City, Philippines  
inho\_park@wycliffe.org  
yeonji\_park@wycliffe.org

2012년 8월

선교편지 제 46 호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과 사역을 위하여 항상 기도하여 주시는 교회와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가 교회와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랜 동안 기도하며 기다리던 뉴욕 예일 교회 단기 선교팀 34명이 3번의 비행기를 갈아 타며, 거의 30시간의 긴 여정을 거쳐 마침내 이 척박한 곳에 도착 하였습니다. 제대로 인사를 할 겨를도 없이 선교팀의 안전을 위하여 배치된 무장한 군인들의 호위를 받으며 신속하게 공항을 빠져나와 2시간 정도 떨어진 디고스로 이동을 해야만 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한 첫날부터 밤, 낮이 뒤 바뀐 시차나 열악한 환경에 적응할 틈도 없이 복음과 의료 혜택을 갈급하게 기다리는 현지 주민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2012 필리핀 단기 선교팀

다양한 사역을 통하여 땅 끝의 백성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였습니다. 찬양으로 주님과 의 막힌 담을 허물어 뜨리고, 현지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로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주님 앞으로 저들을 초청할 때에 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으며 손을 들었습니다. 어린 학생으로부터 교도소에서의 어지럽게 문신을 한 재소자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찾으시는 주의 잃어버린 백성임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Youth Group을 포함한 선교팀 모두가 한 사람씩 붙잡고, 갈급한 마음으로 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으로 돌아 오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고,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심을 곳곳에서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역 보건소의 협조를 받아 내과, 소아과, 치과 치료와 더불어 안경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많은 고통 가운데에서도 의료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없었던 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베푼 의료 사역을 통해 육신의 어려움에서 놓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그저 뿌연줄 알고 살았던 사람들이 새롭게 안경을 끼고 얼굴이 활짝 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여러분께서 정성껏 준비하여 주신 각종 선물들은 구원 사역과 의료 사역을 마친 마을 주민들과 학생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었습니다. 마띠 고등학교에서 약 1,300여명, 익핏 고등학교에서 약 1,100여명, 디고스 고등학교에서 약 1,000여명, 해변 마을에서 약 900여명 그리고 마띠 교도소에서 약 300여명등 총 4,600여명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더위로 인하여 이른 아침부터 온 몸을 땀으로 적시며, 점심 식사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여건 가운데에서도 미소를 잃지 않고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팀은 모두들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물과 음식이 열악하여 많은 분들이 복통과 고열로 고생을 하였지만 맡은 책임을 최선을 다해 감당함으로 인하여 서로를 격려하며, 세워주는 놀라운 힘을 발휘하게 하였습니다. 아직 철이 없는 어린 학생인 줄로만 알았던 Youth Group은 한명 한명이 복음의 사명을 너무도 훌륭하게 감당하는 잘 준비된 주의 사자들 이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욨 2:28)**

복음의 불모지인 이곳을 불쌍히 여겨서 이번 예일 교회의 단기 선교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풍성하게 베풀어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랜 동안 기도와 철저히 준비하여 이번 사역을 훌륭하게 감당하신 김종훈 목사님과 윤희주 장로님을 비롯한 34명의 단기 선교팀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전폭적인 지원을 해 주신 청년부, EM 그리고 Youth Group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단기 선교를 위해서 시간을 정해 놓고 기도하시며, 풍성한 물질로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 드립니다. 이번 선교팀의 방문으로 주님의 가장 큰 사랑과 은혜를 체험한 자는 아마도 이곳에 선교사로 와 있는 저희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복음에 빛진자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새힘을 얻은 저희들은 여러분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을 기억하며 맡겨주신 사역을 더 잘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끄기를  
네 하나님은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사 52:7)**

예일 교회 선교팀이 이곳을 방문하여 이곳의 학생이나 주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고, 변화가 있었는지 참으로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2 주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이곳에 뿌려진 씨앗이 얼마만큼 자랐는지 확인할 방법은 없지만, 그래도 약간의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우선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디고스 시내에서도 저희 부부를 알아보고 인사를 하며 웃음을 짓는 사람들이 많아 졌습니다. 마띠 고등학교의 교장 선생님의 말씀을 빌리자면, 이곳에서 50여년을 살아 왔던 교장인 자신보다 디고스와 관계를 맺은지 2년밖에 되지 않은 저희들을 알아 보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우스개 소리로 디고스 지역의 정계로 진출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또한 예일 교회에서 기증한 도서 및 컴퓨터로 인하여 마띠 고등학교의 도서실이 꽤 유명한 곳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번주 초에는 주지사를 비롯하여 주의원, 학교계 책임자들을 초대하여 학생과 학부모들이 모인 가운데 정식으로 도서실을 개관하는 행사를 치루었습니다. 잘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예일 교회에서 기증한 책으로 인하여 마띠 고등학교 도서실이 지역 신문 및 TV 방송국에서 취재를 나올 정도로 큰 뉴스가 되고, 지역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학생들의 변화입니다. 특별히 예일 교회 선교팀과 함께 이번 사역을 아주 가까이에서 지원을 했던 마띠 고등학교의 20명의 학생들에게는 아주 큰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모든 사역을 마치고 선교팀이 이곳을 떠나기 전날, 이 20명의 학생들을 저희들이 머물렀던 호텔로 초대하여 식사도 같이하고 아쉬운 마음으로 눈물까지 흘리며 마지막 친교를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서 김종훈 목사님께서 학생들을 격려하며 말씀을 주셨는데, 선교팀이 떠난 이후 학생들은 이 말씀을 잊지않고 나무판으로 Sign을 만들어 마치 교훈처럼 학교 곳곳에 붙여 놓고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Be a good Christian, Be a good Student  
and Be a good Leader!'**



**도서실 개관을 축하하는 주지사와 함께**



**새롭게 등장한 학교 교훈**

거의 금년초부터 선교팀의 방문 및 사역을 돕기 위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여 같이 의논하고, 준비하는 일들을 해왔었습니다. 이곳에서는 그 누구도 선교팀 방문을 한번도 경험해 본적이 없는 까닭에 사역의 본질을 충분히 숙지하게 하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토록 했습니다. 학교에서는 교장 선생님을 비롯하여 주요 역할을 맡은 선생님들과 횃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만나서 준비를 했었습니다. 또한 보건소의 의사와 간호사들도 수시로 만나서 관련 내용을 Presentation하고, 위치 및 역할에 빈틈이 없도록 준비 하였습니다. 또한 선교팀의 안전을 책임지는 군부대의 책임자들도 여러번 만나서 지역 주민들에게 위화감을 주지 않도록 선교팀 차량 이동 경로 및 경호 방법에 대해서도 많은 의논을 하였습니다.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저에게 이르라 네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생각이 주밀하도다 (왕하 4:13a)**

그런데 무엇보다도 큰 수고를 한 것은 마띠 고등학교에서 선발한 20명의 학생들과 마띠 교회에서 조직된 찬양팀 10명입니다. 선교가 무엇인지, 또한 선교팀이 방문해서 어떠한 일들을 하는 것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필요한 인원을 구성하고, 내용을 채워 나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훈련하고, 연습했던 학생과 청년들입니다. 이번 선교 기간동안 선교팀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길었기 때문에, 그 누구 보다고 이들이 보고, 느낀 선교팀의 방문 결과가 너무도 궁금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에는 그동안의 수고를 위로하고, 감사하며 모두 함께 디고스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해변으로 놀러가서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디고스에서 약 20분 정도 떨어진 가까운 거리에 해변이 위치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바닷물에 몸을 적시는 즐거운 날이었습니다. 푸짐하게 점심을 먹고 난 이후에, 미리 준비해서 간 설문지를 통하여 이들이 경험한 선교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선교팀이 남겨 놓고 간 풍선과 함께**

1. 구원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더 알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의료 선교가 가난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이었지만,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일이 더욱 더 중요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게 되었고, 더욱 더 하나님을 잘 알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특별히 모든 Youth Group 친구들에게 감사합니다. 그들을 통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Louie)
2. 그동안 배운 한국말을 조금이라도 사용할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의료 사역중에 질서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로 인하여 눈물이 날 정도로 힘이 들 때도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을 도와 주는 것이 큰 기쁨임을 배웠습니다. 특별히 구원 사역중에 손을 들어 기도해 달라고 요청했을 때에, 저를 붙잡고 기도해 주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또한 호텔로 저희들을 불러서 맛있는 음식도 먹게하고, 또한번 개인적으로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Noemi)
3. 선교팀을 도와 줄 수 있는 지원팀에 소속이 되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익핏 고등학교에서는 서로 먼저 치료를 받으려고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로 인하여 속이 많이 상했지만, 하나님께서 남을 돕는 큰 기쁨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이제부터 교회에 잘 출석하겠습니다. (Dona)
4. 선교팀에 쓰임을 받을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수많은 아픈 사람들을 가까이 보면서 몸 관리를 잘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좋은 선교팀을 필리핀에 보내 주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모든 선교팀을 위해 잊지 않고 늘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Anna)
5. 구원 사역을 통하여 구원이 무엇인지를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같은 사람에게도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원합니다. 이번에 방문한 선교팀이 계속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와 주기를 바랍니다. (Jonnel)

6. 다른 사람을 도와 주는 것이 큰 기쁨이며 행복임을 알았습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웃음을 잃지 않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선교팀이 저에게 베풀어 주신 친절은 정말 잊지 못할 것입니다. 항상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꼭 다시 한번 더 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Christy)
7. 팀의 일원이 되어서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다른 곳을 가본적이 거의 없는데, 다른 학교에 가서 남을 도와 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있음을 알게 되었으며, 교회에 빠지지 않고 출석하겠습니다. 한국 친구를 처음으로 알게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한국 친구들도 나를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Kristel)
8. 태어나서 지금까지 경험한 것 중에 가장 좋은 경험을 한 것 같습니다. 필리핀이 매우 가난하지만, 이번 의료 선교를 통해서 도리어 더욱 더 사랑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교회에 잘 나가지 못해서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많은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Youth Group과 사진도 많이 찍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서로 잊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또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Ladyvee)
9. 의료 선교를 통하여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특별히 비싼 약들과 안경을 무료로 나누어 주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더 열심히 출석을 하겠습니다. 선교팀들은 매일 많은 사람들을 돌보아야 했지만, 저에게 개인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의 이름과 얼굴을 잊지 말고, 다음에 꼭 다시 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Raiza)
10. 선교팀 모두가 너무도 친절했습니다. 또한 수줍음 많은 나에게까지도 관심을 가져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선교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알게 되어 너무 기쁩니다. 의료 선교가 너무 좋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많은 재능을 주셔서, 나도 선교팀 처럼 의료 선교에 쓰임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Mary Grace)



예일 선교팀이 입었던 T-Shirts를 물려 받은 미래의 선교팀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벧전 2:10)

### 기도 요청

- 장기 체류를 위한 비자 변경을 위하여
- 청소년 선교 기관 설립을 위하여
- 흩어져 있는 자녀와 저희들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와 재정 후원으로 사역에 동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후원금을 보내 주실 때는 Check를 **Wycliffe Bible Translators** 앞으로 해 주시고,  
Check Memo에 **"for Inho & Yeonji Park (#215049)"** 라고 기입 하신 후, 아래의  
주소로 보내 주시면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정말 큰 힘이 되겠습니다.

**Wycliffe**  **Wycliffe Bible Translators**  
P.O. Box 628200  
Orlando, FL 32862-8200

